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의 윤리적 정당성 연구

박한솔* 백석예술대학교

초록 K-POP 안무는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이 아니라 창작자의 예술적 개성과 기술적 역량이 반영된 창작물로, 대중문화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안무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중적 확산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Kant의 의무론과 Mill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윤리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확산과 창작 생태계의 조화를 고려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Kant의 의무론은 창작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며, 무단 사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반면, Mill의 공리주의는 안무의 자유로운 활용이 산업 성장과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보다 유연한 저작권 보호 체계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윤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K-POP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창작자와 대중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POP 안무 저작권 보호 정책과 창작 환경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K-POP댄스, 안무저작권,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I. 서론

최근 세계적인 K-POP 그룹의 시그니처 안무가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과 광고 캠페인에서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김지선, 2022.02.07).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안무의 무단 사용을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K-POP 안무가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공유와 확산이 장려되어야 하며, 이는 오히려 산업적 성장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박한솔, 민은지, 2024). 이러한 대립은 K-POP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혹은 대중문화 자산으로서 개방성과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적 논의를 야기한다.

예컨대, 2024년에도 클론의 강원래가 창작한 ‘꿈따리 샤바라’ 안무가 대기업 광고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당 안무를 저작물로 인정하며 저작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이미나, 2024.10.09.). 이는 K-POP 안무가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례였으나, 동시에 초기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반대로 일부 기획사는 안무 저작권을 근거로 팬 커버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보낸 바 있으며(김승혁, 2021.06.10.), 이는 자발적인 팬 콘텐츠 생산 문화를 위축시켜 K-POP의 확산성과 글로벌 팬덤의 창의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K-POP 안무는 단순한 신체 동작의 조합을 넘어, 음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표현 수단이다(김미숙, 한아람, 2024). 특정 시그니처 안무는 대중이 특정 음악에 대한

*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강사, hansol0115@bau.ac.kr

대주의 인지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증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 창작 과정에서는 고도 안무가의 창의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안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창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개별 동작이나 짧은 움직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이로 인해 안무 창작과 보호를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보호 강화의 필요성과 산업적 유연성 간의 논쟁이 상충하고 있다.

더 나아가,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안무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기존의 자유로운 창작 관행과 퍼포먼스 문화에 제약을 가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무가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박한솔, 민은지, 2024). 또한, K-POP 안무는 다수의 창작자가 협업하여 완성하는 집단 창작물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안무가와 소속사 간의 권리 귀속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아울러, 팬들이 SNS 등을 통해 안무를 따라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경우, 이는 K-POP의 글로벌 확산과 팬덤 문화의 자생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논의되어온 K-POP 안무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김윤지, 2024; 조영인, 2018),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무용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거나(박경숙, 2014; 박순송 외, 2018; 서재권, 2009; 심정민, 2019), K-POP 안무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저작권 등록 요건에 집중해 왔으며, 창작자의 권리와 대중적 확산에 따른 쟁점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의를 넘어 윤리학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리학의 대표 이론인 Immanuel Kant의 의무론과 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도덕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중적 접근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Kant의 의무론은 도덕적 원칙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핵심으로 삼으며,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을 강조한다(Kant, 1785). 이 이론에 따르면, K-POP 안무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법적 침해가 아니라, 창작자의 노동과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Mill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따라 그 결과가 가져오는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다(Mill, 1861). 이 관점에 따르면,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는 사회적 효용 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대중의 문화적 향유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K-POP 안무가 자유롭게 공유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즐거움을 얻고, 산업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 제한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보호 체계가 오히려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무론과 공리주의라는 상반된 윤리적 관점을 토대로,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도덕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중적 확산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POP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저작권 보호 정책과 창작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학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창작자와 대중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윤리적 필요성

K-POP 안무는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의 조합이 아니라, 창작자의 예술적 개성과 창조적 노력이 결합된 독창적

산물로서 고유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안무의 보호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조상혁, 2015), 이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K-POP 산업 내에서 안무의 무단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가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윤리적 문제로 지적된다(조상혁, 2015). 따라서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은 단순한 법적 차원을 넘어 윤리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Kant의 윤리학은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라는 보편적 도덕 원칙에 근거해 판단하며, 도덕적 행위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Copleston, 2017). 이 원칙을 K-POP 안무의 저작권 문제에 적용할 경우, 창작자의 동의 없이 안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안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창작자의 권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창작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K-POP 안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될 경우,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창의적 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박한솔, 민은지, 2024). Kant의 윤리적 원칙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보편화되었을 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면, 해당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된다(Copleston, 2017). 따라서 K-POP 안무의 무단 사용은 정언명령의 원칙에 위배되며, 윤리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Kant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을 강조한다(Copleston, 2017). 이는 창작자의 노동과 예술적 기여를 단순한 소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함의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단지 법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로 작용하며, 창작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K-POP 안무의 무단 사용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과 창조적 노력을 폄훼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Mill의 공리주의적 접근에서는 K-POP 안무가 자유롭게 공유될 경우 대중적 만족감이 극대화되고, 산업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안무 확산이 K-POP의 세계적 성공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안무 보호보다 자유로운 사용이 더 큰 공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접근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두기 때문에(Mill, J. S., 2024),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집단적 효용을 위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공리주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K-POP 안무의 자유로운 활용이 산업 발전과 대중적 즐거움을 증대 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개별 창작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가 집단적 효용을 이유로 침해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K-POP 산업에서는 이미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리주의적 논리에 의해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 유명 K-POP 그룹의 시그니처 안무가 해외 광고나 다른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창작자의 기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유주현, 황지영, 2024.05.18.). 이러한 현상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산업적 이익을 위해 용인될 수 있으나, Kant적 윤리관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된다. 예술 창작물은 단순한 공공재가 아니라, 창작자의 독창적인 노력과 개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요구된다.

Kant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윤리적 필연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기반 위에서 형성되며,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러한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Johnson & Cureton, 2004).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는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창작자의 도덕적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법적 조치를 넘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Kant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는 보편적 도덕 법칙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하며, 창작자의 동의 없이 안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또한, 창작 행위의 가치는 단순한 공리적 효용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필수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문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처럼 Kant의 의무론은 창작자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윤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K-POP 산업은 단일한 창작자가 아닌, 다수의 공동 창작자와 소속사와의 계약 구조, 글로벌 팬덤의 자발적인 문화 확산,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환경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의무론은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창작자와 대중 간의 관계, 산업의 발전과 창작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K-POP 안무 저작권을 둘러싼 의무론적 접근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리주의 이론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한계와 윤리적 과제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창작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Kant의 의무론에 따르면 도덕적 절대성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O'Neill, 1989), 이는 예술 창작의 본질과 현대 문화산업의 작동 방식과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창작물을 참고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창조적 재구성이 억제될 경우 오히려 예술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Biagioli, 2019). 이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접근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이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한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공리주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에 두며, 특정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이익과 그 규모를 고려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평가한다(Mill, J. S., 2024).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경우, 창작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문화적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POP 안무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다(민수아, 2025.01.29.). 특히, SNS를 통한 안무 챌린지 및 팬들의 자발적인 안무 재현은 K-POP 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산업적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수경, 2022.04.14.). 그러나 안무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경우, 이러한 자발적 확산이 제한되면서 결과적으로 K-POP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또한, 예술 창작의 특성을 고려할 때, K-POP 안무의 발전은 기존 안무와의 연속성과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다(이호신, 2019). 창작자들은 선행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스타일을 구축하는데, 저작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이러한 창작적 과정이 억제될 위험이 있다(박한솔, 민은지, 2024). 만약 모든 안무가 개별 창작자의 독점적 권리로 보호된다면, 후속 창작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예술적 발전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K-POP 안무의 일정 수준의 자유로운 공유는 창작의 지속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문화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접근이 창작자의 권리를 단순히 희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공리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저작권 보호 모델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단순한 개인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창작 동기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대중적 확산을 허용하는 유연한 저작권 보호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대중적 확산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저작권 보호 모델이 필요하다.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이러한 보호체계는 최대다수의 문화 향유와 산업적 효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실천적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팬 커뮤니티 오픈 라이선스 모델은 창작자나 소속자가 특정 안무를 비영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팬 커버 영상, 댄스 챌린지, 교육 콘텐츠 등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 되, 창작자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존중하고 팬 커뮤니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창작 공유 후 상업 이용 통제 모델은 유튜브나 틱톡 등과 같은 플랫폼 내에서 비상업적 공유는 허용해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이 확인되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 분배 구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영상 조회 수나 구독자 수, 광고 수익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자동 정산 시스템이 연동된다면, 창작자의 보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콘텐츠 확산이 가능해진다.

셋째,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도입하여 기획사나 공공기관이 K-POP 안무의 공정 이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영상의 길이, 활용 범위, 비영리 여부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조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과 책임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각각의 방식으로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K-POP 안무에 대한 문화 콘텐츠의 확산과 산업적 이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윤리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규제나 방임을 넘어, 윤리적 조율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법적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도덕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대중적 접근성과 산업 발전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이다. 의무론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엄의 차원에서 보호하지만, 공리주의 관점은 예술의 확산성과 산업적 효용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두 윤리 원칙은 상호 대립적이기 보다 조율 가능하며, 창작자의 권리와 대중의 향유 사이에 실천 가능한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와 대중, 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윤리적 기반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

IV. 결론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대중적 확산과 산업적 성장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Kant의 의무론과 Mill의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K-POP 안무 저작권 보호의 윤리적 정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Kant의 도덕 철학은 창작자의 권리를 절대적 도덕 원칙으로 간주하며, 창작물의 무단 사용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한다. 그러나 의무론적 접근은 예술 창작이 기존 표현의 참고와 재구성을 통해 발전해 온 실천적 측면에 대해 충분히 유연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안무의 반복적 활용이나 짧은 동작의 재조합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창작 활동의 자율성과 팬의 창작 참여 문화에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리주의적 접근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안무의 자유로운 활용이 K-POP 산업의 확산과 문화적 공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산업적 실용성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은 K-POP 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SNS를 통한 안무 공유는 팬 참여와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며, K-POP을 단순한 음악 산업이 아닌 창작자와 대중이 협력하는 상호작용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Kant의 의무론 원칙을 절대적으로 적용하여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K-POP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성장과 대중의 창작 참여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Mill의 공리주의적 접근은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의 확산과 대중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창작자의 노동과 예술적 기여는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예술 창작의 본질이 상호 영향과 모방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하여 비영리적 사용과 창작적 변형이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고,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정 이용 원칙의 적용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K-POP의 국제적 확산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K-POP의 글로벌 확산을 고려한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안무 창작자가 일정 조건에서 팬들이 안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상업적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대중적 문화 소비 간의 균형을 설정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이다. 예술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은 창작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되지만, 해당 창작물이 산업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종합하면,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론적 접근과 산업적 확산을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윤리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산업적 성장과 대중적 공유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는 단순한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중적 접근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예술 창작의 본질과 문화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윤리적 관점에서 K-POP 안무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정책적 개선과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K-POP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적 확산과 문화적

공유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와 산업적 확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미숙, 한아람(2024). K-pop 댄스의 예술적 가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2(4), 127-141.
- 김수경(2022.04.14). **박재범·있자·BTS까지... "케이팝 스타들은 지금 인스타그램 릴스에"**. Brand Brief. <https://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1>
- 김승혁(2021.06.10). **저작권침해받는 '음방 짜깁기'콘텐츠, 못 잡나 안 잡나**. PD JOURNAL.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98&utm>
- 김윤지(2024). 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및 토대 구성 -케이팝 안무 저작물을 중심으로-. **미래문화**, 9, 5-37.
- 김지선(2022.02.07). **강원래 "안무 그만 베껴요"...노제도 언급한 '저작권'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713564121616>
- 민수아(2025.01.29). **케이팝과 춤의 만남...SNS 통해 세계로**.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3224>
- 박경숙(2014). 무용저작권 인식 개선과 등록 활성화 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127-144.
- 박승순, 김희권, 이주라(2018). 무용저작권 성립을 위한 무용 안무의 창작성 인정요건.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855-865.
- 박한솔, 민은지(2024). K-POP 안무저작권 도입에 대한 쟁점 분석. **영남춤학회**, 12(3), 151-176.
- 서재권(2009).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16, 53-79.
- 심정민(2019).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 5(4), 9-29.
- 유주현, 황지영(2024.05.18.). **춤에도 DNA 새긴다...K팝 안무가들, 세계 최초 안무저작권 수익 배분 추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062>
- 이미나(2024.10.09.). **[단독] '공파리 사마라' 강원래, '안무 저작권' 첫 인정받았다**.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39237>
- 이호신(2019). 한국 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과제. **무용역사기록학**, 54, 31-56.
- 조상혁(2015).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6(1), 871-905.
- 조영인(2018). 안무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규정 및 등록 프로세스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7), 425-441.
- 한국저작권위원회(2021). **저작권 사건과 판례 I**. 진주 : 행복큐산업.
- Biagioli, M. (2019). Weighing intellectual property: Can we balance the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patenting?. *History of Science*, 57(1), 140-163.
- Copleston, F. (2017). **칸트 (임재진, 역)**. 서울 : 도서출판 증원문화. (원저 출판 1986)
- Johnson, R., & Cureton, A. (2004). *Kant's moral philosophy*.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04 Edition). Stanford University. Retrieved from
- Kant, I. (1785).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1785). New Haven.
- Mill, J. S. (1861). *Utilitarianism* Hackett Publishing. Indianapolis, IN, 1979.
- Mill, J. S. (2024). **자유에 관하여 (김은미, 역)**. 서울 : 후마니타스. (원저 출판 1859)
- O'Neill, O. (1989). *Constructions of Reason: Explorations of Kant's Practic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K-POP Choreography

Hansol Park* Baekseok Arts University

K-POP choreography is not merely a series of physical movements but a creative work that embodies the artistic individuality and technical expertise of the choreographer,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However, current copyright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protection for choreography, making it a significant challenge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choreographers' rights with 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their work. This study analyzes the ethical justification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of K-POP choreography by applying Kant's deontological ethics and Mill's utilitarianism. Furthermore, it proposes a protection framework that ensures choreographers' rights while maintaining harmony between industrial expansion and the creative ecosystem. The findings suggest that Kant's deontological ethics emphasize the absolute protection of choreographers' rights, arguing that unauthorized use cannot be morally justified. In contrast, Mill's utilitarian perspective highlights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free utilization of choreography in fostering industrial growth and creative engagement, advocating for a more flexibl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By integrating these two ethical persp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copyright protection standard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POP industry and provides insights into building a sustainable cultural ecosystem where both choreographers and the public can coexist. Ultimately, it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n balancing copyright protection policies with the creative environment in the K-POP industry.

Key words : K-POP Dance, Choreography Copyright, Ethics, Deontology, Utilitarianism

논문투고일: 2025.02.27

논문심사일: 2025.03.26

심사완료일: 2025.04.11

* Instructor, Department of Practical Dance, Baekseok Arts University